

## 40%까지...타운 신규 콘도 파격 할인

LA한인타운 미분양 신규콘도들이 대대적인 가격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그동안 외곽지역 신규 주택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까지 리스팅 가격을 고수하던 한인타운 콘도 개발업체들이 마침내 리스팅 가격 대비 최고 40%까지 가격을 할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공격적으로 콘도 판매에 나서고 있는 곳은 월셔와 웨스턴 코너 고층 콘도인 '머큐리'. 최근 베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 및 투자사 '캐네디 월슨'이 미분양 유닛 149채를 벌크(일괄) 매입한 '머큐리'는 지난 주부터 초기 리스팅 가격 대비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에 들어갔다. 당초 49만달러 정도에 리스팅된 998스퀘어피트 크기의 1베드룸 콘도가 29만5000달러에 판매됐으며, 56만5000달러에 리스팅된 1베드룸 콘도는 34만4000달러로 가격이 조정됐다. 또 79만5000달러로 가격이 책정됐던 1245스퀘어피트 크기 2베드룸 콘도는 47만1000달러에 팔리는 등 그야말로 파격 할인판매에 돌입한 것. 이에 따라 머큐리 콘도는 지난 주말에는 수십유닛이

sqf당 고층 400·저층은 300달러까지 내려 80만달러 가던 것 47만여달러에 팔리기도

팔리는 등 한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슬리와 7가 코너 고층 콘도 '더 뷰'도 6월말부터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10층 높이에 총 168유닛 규모의 '더 뷰'는 최근 그랜드 오픈 행사를 다시 가진 후 초기 리스팅 가격 대비 15%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에 들어갔다. '더 뷰' 리스팅을 맡고 있는 콜드웰벡커 월셔 부동산의 라이언 오 공동대표는 "기존 가격으로는 더 이상 판매가 쉽지 않아 개발업체를 설득, 할인을 시작했

다"며 "잠재 바이어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6가와 뉴햄프셔 코너 '서밋 온 식스'도 최근 기존 가격 대비 20% 가까이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같은 할인 판매는 대형 콘도 뿐 아니라 중소형 콘도도 마찬가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스퀘어피트당 450달러선에 리스팅에 나왔던 중소형 콘도 단지내 콘도들이 최근 들어서는 스퀘어피트당 300~350달러선에 리스팅이 이뤄지고 있다. 월터길의 한 콘도의 경우, 지난해 스

퀘어피트당 최고 500달러에 분양됐으나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최근에는 350달러까지 깎아주고 있으며, 월터길에 가까운 한 콘도도 스퀘어피트당 450달러에 판매를 시작했다 지금은 320달러 정도로 가격을 낮췄다. 아메리카 부동산의 허대영 에이전트는 "바이어들 인식이 고층콘도는 스퀘어피트당 400달러, 저층 콘도는 300달러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라는 데 일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콘도 개발업체들은 요즘 가격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저층콘도의 경우, 가격이 스퀘어피트당 350달러를 넘으면 비싸다고 생각해 거의 찾지 않는다"며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30% 정도는 떨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월셔와 웨스턴 코너 '머큐리'.



◀김슬리와 7가 코너 고층 콘도 '더 뷰'.



▶6가와 뉴햄프셔 코너 '서밋 온 식스'.

## 매출액 세계 1위 '셀'

포천 500대 기업 삼성전자는 40위

경제전문지 포천은 8월 2009년 매출 기준 최대의 글로벌 기업으로 에너지 회사인 로열더치셀을 선정하는 등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포천지에 따르면 네덜란드 기업인 로

열더치셀은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고 엑손모빌이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위였던 월마트는 2단계 내려가 3위를 차지했다.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0위내

에는 영국 BP와 세브론, 프랑스 토탈, 코노코필립스, ING그룹, 중국 석유화학 회사인 시노펙, 도요타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10대 기업 가운데 에너지 관련 회사는 올해 7곳으로 지난해 6곳에서 1곳 늘어났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40위)와 LG(69위), 현대자동차(87위) 등 3곳이 글로벌 100대 회사내에 들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은 지난해 보다 순위가 약간 내려갔다.

## 페이스북 이용 중년층 늘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 이용자 가운데 중년층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8월 샌프란시스코코로나클에 따르면

온라인 마케팅 회사인 '아이스트레이지 랩스'(iStrategy Labs)의 조사 결과 미국내 35세에서 54세까지의 페이스북 이용자 비율이 28.2%를 차지했다. 중년층 이용자의 비율 28.2%는

24세에서 34세까지의 이용자 비율 25.2%를 넘어선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까지 대학생 등 10~20대 계층의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30~50대의 이용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이용자 연령층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코로나클은 전했다.

**이원석 법률 그룹**  
LAW OFFICES OF FRED LEE & ASSOCIATES

상법, 부동산법, 자산보호, 파산법

(714)739-1234  
5821 Beach Boulevard, Buena Park, CA 90621

재미경영학회 법률강사/한국일보 법률 컬럼 기고  
Radio Seoul 법률 상식 고정출연/복음방송(법률상담)고정출연

**MEKEN**  
888-941-3311

가슴 크기는 그대로  
뱃살은 쏘옥 빼 드립니다

가슴이 줄어들거나 얼굴주름살만 만드는 다이어트는 마음에 상처까지 남깁니다. 메타볼리즘으로 가슴이 아닌 뱃살을 빼 드립니다.

우메켄 다이어트 메타 플럼

내용량: 13g x 30 Tubes